

2014.6.26(목)

보도자료

2014년 6월 26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 김성규 과장(☎2110-1440)
방송시장조사과 이기훈 사무관(☎2110-1444) khlee35@kcc.go.kr

2013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

- ▲ 전체 재산규모 : 자산 30조 5,151억원(4.3% 증가), 부채 11조 2,535억원(6.3% 증가), 자본 19조 2,616억원(3.1% 증가)
- ▲ 방송사업 매출 12조 9,063억원(6,339억원, 5.2% 증가), 당기순이익 1조 1,293억원(730억원, 6.9% 증가)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전체 396개 방송사업자 중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한 364개 방송 사업자에 대한 「201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」을 공표하였다.
- (**재무 현황**) 방송사업자의 전체 자산은 30조 5,151억 원(4.3% 증가), 부채는 11조 2,535억 원(6.3% 증가), 자본은 19조 2,616억 원(3.1% 증가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 방송사업자 재무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자산			부채			자본		
	2012	2013	증감	2012	2013	증감	2012	2013	증감
지상파	67,486	68,408	922	16,137	15,815	-322	51,350	52,593	1,243
종합유선(SO)	60,627	61,065	438	26,899	28,155	1,256	33,728	32,910	-818
방송채널(PP)	157,954	168,757	10,803	59,972	65,835	5,863	97,983	102,922	4,939
지상파DMB	288	245	-43	72	57	-15	216	188	-28
위성 방송	6,228	6,676	448	2,753	2,673	-80	3,475	4,003	528
합 계	292,583	305,151	12,568	105,833	112,535	6,702	186,752	192,616	5,864

- (방송매출·손익 현황)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6,339억 원(5.2%) 증가한 12조 9,0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30억 원(6.9%) 증가한 1조 1,293억 원이었다.

지상파 및 지상파DMB의 방송매출은 감소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 및 위성방송의 방송매출은 증가하였다. 이에 따라 전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방송매출의 점유율은 감소하고(32.4%→30.2%) PP의 점유율은 증가(44.9%→47.1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방송사업자 매출·손익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방송사업 매출			당기순손익		
	2012	2013	증감	2012	2013	증감
지상파	39,704	38,963	-741	2,031	1,241	-790
종합유선(SO)	22,790	23,792	1,002	4,812	3,618	-1,194
방송채널(PP)	55,121	60,756	5,635	3,167	5,736	2,569
지상파DMB	116	95	-21	-8	-28	-20
위성방송	4,993	5,457	464	561	726	165
합 계	122,724	129,063	6,339	10,563	11,293	730

- 전체 방송매출 중 광고매출이 3조 4,763억 원(26.9%), 홈쇼핑방송매출이 3조 4,145억 원(26.5%), 수신료매출이 2조 1,591억 원(16.7%)으로 약 70%였으며 그 외 프로그램판매·제공매출,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, 협찬매출 등이 30%를 차지하였다.

광고매출의 경우 온라인, 모바일 등 타매체와의 경쟁심화 및 방송광고시장 침체로 인해 '11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('11년 3조 7,343억 원, '12년 3조 5,626억 원, '13년 3조 4,763억 원). '13년의 경우 지상파 광고매출이 전년 대비 1,158억 원(\triangle 5.3%) 감소하는 등 전체 광고매출은 863억 원(\triangle 2.4%) 감소하였다.

KBS와 EBS의 TV수신료매출의 경우 징수대상가구의 증가로 인해 112억원(1.9%) 증가하였고 위성방송의 방송수신료매출은 가입자 증가로 인해 255억원(7.2%) 증가하였으나 SO의 방송수신료매출은 가입자 감소에 따라 207억원(\triangle 1.7%) 감소하였다.

< 주요 수익원별 매출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수신료매출		광고매출		기타		합 계	
	2012	2013	2012	2013	2012	2013	2012	2013
지상파	6,015	6,127	21,833	20,675	11,856	12,161	39,704	38,963
종합유선(SO)	11,870	11,663	1,094	1,220	9,826	10,909	22,790	23,792
방송채널(PP)	–	–	12,479	12,636	42,642	48,120	55,121	60,756
지상파DMB	–	–	75	58	41	37	116	95
위성방송	3,546	3,801	145	174	1,302	1,482	4,993	5,457
합 계	21,431	21,591	35,626	34,763	65,667	72,709	122,724	129,063

- 주요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741억원 (\triangle 1.9%) 감소한 3조 8,96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90억 원(\triangle 38.9%) 감소한 1,241억원이었다. KBS, SBS, 지역MBC 및 지역민방은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방송매출이 감소하였으나 MBC 및 EBS는 프로그램판매 매출 증가 등으로 방송매출이 증가하였다.

SO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1,002억원(4.4%) 증가한 2조 3,79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,194억원(\triangle 24.8%) 감소한 3,618억원이었다. 특히 '13년도 개별SO(7개사) 인수로 인해 MSO의 방송매출은 1,587억 원(8.1%) 증가한 2조 1,070억원으로 전체 SO 매출의 88.6%를 차지하였다.

PP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5,635억 원(10.2%) 증가한 6조 756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,569억 원(81.1%) 증가한 5,736억 원이었다. 이 중 복수채널사용사업자(MPP)의 방송매출은 1조 6,536억 원으로 홈쇼핑 PP를 제외한 PP 방송매출의 62.1%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'11년 69.3%, '12년 64.8%, '13년 62.1%).

종합편성PP의 방송매출은 프로그램제공매출(PP 프로그램 사용료) 및 광고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98억 원(35.2%) 증가한 3,062억 원이었으며 이러한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550억 원(Δ 20.0%) 감소한 2,205억 원이었다.

홈쇼핑PP의 방송매출은 3,857억 원(12.7%) 증가한 3조 4,145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,551억 원(31.4%) 증가한 6,487억 원이었으며 중소기업 전문 ^(주)홈앤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(2,017억 원→3,213억 원) 것으로 나타났다.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표한 재산상황 자료를 방송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수립, 방송평가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등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.

붙임 : 2013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개요 1부. 끝.